월/요/광/장

이병화

광주, 평화·화해의 발신자 돼야

몇년 전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 일본인 교수로부터 요즘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들었다. 그는 일본인 특히 젊은 일본인들이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인들에 대해 점차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첫째는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다. 한류는 이제 특정 연예인 몇 사람에 대한 인기를 넘어 한국인들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놀라운 열정이다. 한국은 2002년 월드컵에서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4강 신화를 창조했다. 그 과정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국민들의 뜨거운 거리응원은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 특히 공동개최국이면서도 이러한 멋진 모습을 지켜만 보아야 했던 이웃 일본 젊은이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느끼도록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경계심으로 이웃인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지역 패권을 놓고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런 전략적 이유 때문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반일감정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 한일관계에서 양국 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지면은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반일 기사로 넘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주의를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매우 정당한 가치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민족주의가 배타적으로 흐르기 쉽고 특히 정치인들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들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을 비판해 관계가 불편했는데 한 프랑스계 미국 기업인은 필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프랑스가 비판한 것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부시 행정부이지 미국, 특히 미국인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미국인들은 프랑스의 시락 정부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포도주 불매운동을 벌였고, 나아가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의 표상인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한일관계에서 비판과 비난의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추종자, 역사를 왜곡하는 일부 국수주의적 학자, 영토문제를 계속 야기하는 일부 선동가들과 선량한 일반 시민, 양심적인 일부 지식인들을 구분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듯이 우리 내부의 지역감정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있다. 특히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누군가 지역감정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역차별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악용한 세력들은 비판을 받아야 당연하지만 과거에 묶여 작은 나라가 또 지역별로 찢어져 서로 불화하고 반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필자는 앞으로 광주가 동아시아지역 협력과 지역감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동안 광주는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의 발신자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인권·평화운동가들에게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국제인권회의를 개최하고 '광주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함으로써 세계 인권 신장에 앞장서 왔다.

2010년 5월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은 미래의 평화로운 아시아를 위한 상호 문화교류, 창조성, 다문화 연구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시아 국가간의 평화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연대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광주에서 이웃 국가와 이웃 지역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전 광주시 정무부시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기아차노조 '파업 만능주의' 고집할건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기아차 노조는 그동안 진행해온 본교섭이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금까지 6~8시간 벌이던 파업을 오늘부터 20일까지 8~12시간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막무가내식 기아차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이젠 신물이 난다.

기아차는 지난해 2분기 이후 내리 4분기 영업적자를 내 누적규모가 1천575억원에 달했다. 국내판매와 수출도 국내 자동차 5사 가운데 꼴찌다. 회사 경영이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생존 전략부터 찾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8.9% 인상과 성과급 삭감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통상임금의 200%)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누가 봐도 내 배만 불리겠다는 집단이기주의일 뿐 결코 정당한 모양새는 아니다.

국내자동사 산업은 중국의 맹추격과 일본·미국의 견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다 환율 인상까지 겹쳐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런 위기 국면을 아는지 모르는 지 마치 '남의 집 불구경' 하고 있는 듯하다. 이래선 글로벌 시장은 물론 국내에서조차 살아남기 어렵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자제를 호소했다. 잦은 파업이 회사 경영은 물론 지역·국가 경제를 멍들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 여론도 파업만은 안 된다며 노조의 결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노조는 자제는커녕 파업을 확대한다니 이기주의도 이런 이기주의가 없다.

기아차 노조는 시민과 소비자가 등을 돌리면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없으면 회사는 물론 노조도 존재할 수 없다. 툭하면 파업부터 하는 노조행태에 소비자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달아오른 주식시장 과열조짐 경계해야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4월9일 1천500선을 돌파한 지 3개월여만인 지난 13일 1천962.93으로 마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꿈의 지수'라는 2천선에 37.07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호재는 수두룩하다.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 북한의 2·13 북핵 합의 초기단계 이행 등 한반도 정세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 세계 증시도 활황 국면이다. 금리 인상과 환율 하락 등 악재가 있지만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주식 열기는 '광풍' 수준이다. 증권사의 투자설명회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주식관련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인터넷 주식동우회가 잇달아 생겨나는가 하면 직장인은 물론 일반 주부들도 빚까지 내 객장을 찾고 있다.

하지만 불안요인도 많다. 주가 급등은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보다는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고, 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증권협회는 최근의 증시상황을 과열로 진단하고 16일 증권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기와 작전, 허위공시, 횡령 등 상장사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개미들이 쪽박을 차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코스닥 상장사인 UC아이콜스 경영진의 횡령사건을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잇단 인수합병(M&A)을 통해 시가총액을 4천억원대까지 불렸지만 경영진의 횡령혐의가 드러나 400억원대로 추락했다.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는 위험를 초래할 수 있다. 당국은 섣부른 개입으로 모처럼 달아오른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되지만 활황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상훈

노인문제는 바로 내 문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라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통계청 인구변동 예상 값으로 볼 때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를 맞을 것이다.

200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부양비율이 2025년에 34.1%, 2050년에 65.6%로 예상돼 일본 67%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2025년이면 경제가능인구(14~64세) 3명이 한 조(組)가 되어 노령인구(65세) 1명을, 2050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고용시장 유연성으로 60세 이전 퇴직이 보편화하고, 공적연금 지급시기도 60세인 점을 고려해 노령인구를 60세로 잡을 경우 한국은 이미 2005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0년대 초반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는 것이 통계청 보고에 대한 솔직한 분석이 될 것이다.

현재 노인이 처한 고령화사회의 문제는 그동안 아무 대비가 없다가 너무 갑자기 대면케 된 걱정거리가 되었다.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비율은 27.8%인데, 이 가운데 농업 및 어업 종사 비율이 53.9%에 달한다.

장차 농·어업의 대형화·집중화·법인화가 시대의 흐름임에 틀림이 없다면, 65세 이상 노인이 농·어업 적응력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실질적 경제활동 비율 역시 현저히 낮아질 것이 확실하다.

최근 뉴스에 적극적으로 자식으로부터 버려진 노인, 소극적으로 주거지 등에 방치되어 참사를 당한 노인 등 '현대판 고려장'에 관한 보도를 심심치않게 보게 된다.

이 같은 노인의 근로 및 고용·소득·주거·건강·학대방지 등은 우리 법 공동체가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나의 문제,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초 노인들의 인권개선 및 법률지원을 위해 노인법률지원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했다. 위원회는 생활법률상담·법률구조·법률교육·현장조사·유관단체 지원·입법 및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인법률지원변호사단을 발족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도 지난 5월부터 위 지원변호사단 광주지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을 한 바 있다.

모처럼 시작된 노인법률지원활동에 큰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노인들 역시 위와 같은 법률지원의 기회를 십분 활용하려는 권리의식이 필요하다. 자기결정·자기책임의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유독 노인의 문제만을 분리해서 다른 원리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다만, 생리적·심리적·사회적 노화는 예비력·회복력·적응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화를 의미한다.

장차 노인이 사회적 소수자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 일선에서 체득한 경험과 식견을 후대에 전수하는 노련한 후견인으로 존경받는 토양과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변호사〉

기 고

장문수

'웃·고·바' 친절 3운동 펼치자

예향의 도시 광주에서 오는 10월 제88회 전국체전이, 내년 5월 제37회 전국소년체전이 잇따라 열린다.

우리의 고장을 찾는 선수단과 임원 및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친절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의 이미지 제고와 친절하고 인성 바른 학생 지도를 위해 '웃·고·바'친절 3운동을 추진 중이다. '웃·고·바' 친절 3운동은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기, 고운 말씨로 상대와 이야기하기, 바르게 인사하기의 앞글자를 딴 친절운동이자 인성교육이다.

저 상대를 보며 밝은 표정으로 정성을 담아서 상황에 알맞게 인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절 3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부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각급 학교의 경우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친절하고 심성 바른 학생으로 길러야 한다.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예절을 몸에 익히면 학교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예의바르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웃는 얼굴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호감을 주며 마음도 즐겁게 해준다. 웃음은 일을 즐겁게 하고 서로 관계를 편하게 해주며 가정은 물론 직장까지도 밝게 해 주는 삶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소일소(一笑一少) 일노일노(一怒一老)', 즉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도 생겨나지 않았겠는가.

고운 말씨로 상대와 이야기하기는 전달하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상대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히 이해시킴은 물론 상대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되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바르게 인사하기는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말이나 태도 등으로 존경이나 우정을 표시하는 행동양식으로 내가 먼

시교육청 역시 중점시책의 하나로 친절·질서·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 3운동 실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친절만족도 의견 수렴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도 전국체전에 대비해 시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에게도 친절 3운동과 같은 소양교육을 실시해 봉사활동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때 시교육청에서 내세운 학생중심 으뜸 광주교육은 더욱 빛나고 광주를 찾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광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탄탄히 다져질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사무관〉

無 等 鼓

탕헤르

'마그레브'(Maghreb)는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등이 있는 아프리카 북서부 일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아랍어로 '동방'(東方·Mashriq)의 반대인 '서방'(西方)을 뜻한다. 즉 '이슬람세계의 서쪽'이란 의미다.

이슬람의 '동방세계'가 아랍인과 페르시아인 중심이라면 마그레브는 호전적인 민족 베르베르인이 중심이다. 마그레브 지역은 7세기 이후 이슬람 왕국의 흥망성쇠가 되풀이되다가 19세기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됐다.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가 2차대전 후인 1950년대 독립했으며, 알제리는 독립전쟁(1954~1962) 끝에 주권을 되찾았다.

아직도 마그레브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프랑스어가 주요 언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그레브 출신들은 프랑스 이민사회의 거대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 프랑스, 반 유럽 정서도 그만큼 강하다.

마그레브의 소국가 모로코가 갑자기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모로코의 탕헤르가 여수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탕헤르는 카사브랑카와 함께 모로코의 대표적인 도시다. 지브롤터 해협에 면한 항구도시 탕헤르는 천연의 양항에 전략상의 요충지로 강대국 쟁탈전의 표적이 되어왔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문명교류의 창구였으며, 일찌감치 국제항구였다.

욱일승천하던 탕헤르의 기세가 뜻밖의 암초에 봉착했다. 바로 모로코의 최대 약점, 테러 때문이다. 알카에다가 마그레브 일대에 새로운 테러 거점을 마련하면서 졸지에 모로코가 테러 위험국가가 된 것이다.

알 카에다가 마그레브 지역의 최대 테러조직인 살라피스트 선교전투그룹(GSPC)과 연대한 것이 대표적 사례. GSPC는 마그레브를 중심으로 유럽국가를 겨냥한 테러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미 모로코 국내에서는 자살폭탄테러가 속출하고 있다. 여수가 모로코의 테러 덕을 볼지도 모르겠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

승용차 깜박이등 불법개조 철저 단속을

승용차 깜박이등 전구를 파란색 또는 초록색으로 바꿔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다.

파란색이나 초록색 깜박이등은 안개가 끼었을 때는 제대로 반사되지 않아 전후방 차량에 내 차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기가 힘들다. 점멸하는 현란한 네온등을 부착한 차량들은 주위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 아주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에 불법부착물을 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발되더라도 2만원의 벌금만 납부하면 되는 아주 가벼운 처벌조항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자동차의 장치를 일정하게 통일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인 합의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운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단속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최남이·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초등생 영어능력시험 '열풍'…사교육 부채질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에게 영어 학원을 보낸 지 3년 됐다. 얼마전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다짜고짜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다. 왜 갑자기 유학을 보내달라는 것인지 물었더니 자신의 반 아이들 중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 해외로 영어 연수나 유학을 가는 친구가 5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아이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가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유가 있는 가정 아이들은 보통 방학때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 뒤 한두달 늦게 들어오는 방식으로 유학을 다녀온다고 했다. 7월 중순에 나가 9~10월께 돌아오는 것이다.

난감했다. 돈이 어디 있나. 요즘 영어 조기교육 열풍 탓인지 초등학생 영어시험이 지나치게 과열된 것 같다. 초등학생 영어 인증 시험인 펠트(PELT), 토익브리지(TOEIC Bridge), 제트(JET)등 학원에서 보내오는 각종 영어 능력시험 홍보물도 많다.

사교육을 막기 위한 평가억제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FAX 222-4267〉 사회2부 2200-619 〈FA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FAX 222-8005〉 광고국 2200-521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사업2부 2200-552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판매부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